

보조동사 구문의 단층위 선형 분석*

김 광 희(광양보건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보조동사 구문의 단층위 분석 |
| 2. 보조동사 구성의 형태론적 구성설의 한계 | 4.1. 단일 의미성과 핵자질 원리 |
| 2.1. 보조동사는 등재소이다 | 4.2. 단층위 분석의 설명력 |
| 2.2. 보조동사 구성의 생산성 | 5. 맺음말 |
| 3. 보조동사 구성의 내포문설의 재검토 | |

1. 머리말

보조동사 구성은 ‘-어/아’류의 어미를 매개로 두 동사 어간이 결합하여 ‘V₁+어/아+V₂’형식으로 이루어진다.¹⁾ 보조동사를 구문 속에서 통사론적으로 기술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V₁+어/아+V₂’를 동사(V) 절점(node)에 둘 것인가 아니면 동사구(VP) 절점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조동사 구성을 동사 절점의 직접 지배 아래 둔다면 이를 합성동사와 같은 단일어 수준으

로 해석한다는 것이고, 동사구의 직접 지배에 둔다면 이를 동사 연결 구성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조동사 구성은 동사 연결 구성과는 그 성격이 달라서 두 동사 어휘가 등가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본동사와 보조동사라는 기능적 차이를 갖고 결합되는 것이므로 동사구 절점에 기술된다 할지라도 등위구조의 성격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일이다.

보조동사를 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은 전적으로 보조동사 구문 자체의 성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둘이라는 점에서 단문이라 보기도 어렵지만 두 개의 서술어로 해석하여 복합문으로 보는 것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보조동사의 상위동사설, 접속문설, 합성동사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이익섭·채완 1999:388~390).

보조동사 구문에 대한 현대국어의 통사론적 연구는 단순문설과 내포문설이 대립하며 발전해 왔다.²⁾ 보조동사 구문을 단순문으로 인식하느냐 내포문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조동사의 구성을 합성동사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체로 보느냐 아니면 내적 계층성을 갖는 통사론적 구성체로 보느냐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최현배(1937)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보조동사를 본동사에 후속하는 접사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기혁(1987)에서는 이른바 절층적 방법으로서 보조동사 구성을 동사와 동사구의 중간 층위로서 V’로 기술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보조동사 구문을 내포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김영희(1998)의 ‘동사 보속절 내포문설’은 보조동사 구문의 내포문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보조동사가 합성동사나 동사 연결 구성과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보조동사 구성의 단문설과 복문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다. 특히 내포문설을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A00301)

이 글은 2006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형태론 집담회에서 ‘보조동사 구성의 형태·통어적 분석의 접점 — 보조동사의 상위문 동사설에 대한 재론’의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고쳐 쓴 것이다.

1) 이 글에서는 보조동사 구성과 보조동사 구문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보조동사 구성’은 ‘V₁+어/아+V₂’형식의 서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그 개념을 한정하여 사용하며, 이 보조동사 구성을 서술부로 하여 이루어지는 문장에 대해서는 보조동사 구문이라 하겠다.

2) 최현배(1937/1987:254)에서는 보조동사를 “제 홀로는 완전한 풀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으뜸움직씨의 뒤에 붙어서 그 풀이하는 일을 돕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여 보조동사를 동사에 후속하는 어휘 항목으로 처리하는 어휘론적 위치에 서 있었고, 보조동사 구성을 합성어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 연구로는 손호민(1976)이 있었다. 변형문법에 의한 국어 연구와 더불어 이흥배(1970), 양인석(1972), 박병수(1974), 이익섭·임흥빈(1983), 권재일(1986), 김정대(1990), 김영희(1998) 등에서는 보여질 내포문으로 다루는 통사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허용(1983,1999), 김석득(1986), 김기혁(1987) 등에서는 단순문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중 김기혁(1987)의 V’설은 양자의 절층점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내포문이 보여주는 특성에 비추어 어근남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달리 그 성격이 보조적이어서 일반적인 내포문의 상위 동사와는 그 통사기능이나 의미특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조동사를 일반적인 내포문과 동일 형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보조동사 구문의 내포문설에 대해 재검토하고 단순문설과 내포문설을 아우르는 절층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서는 내포문설이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이자 단순문설과 내포문설의 논점을 절층한 통합문법적 방법(unificational approach)으로서 보조동사 구문의 선형구조(linear order structure)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어떤 통사적 변형의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의 어휘적 자질 정보를 통하여 보조동사 구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재구조화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려 한 양정석(2005)와 다르고, 자질 간의 위계(hierarchy)를 설정하여 어휘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논항들 간의 자질과 자질값의 관계를 통해 단층위(monostrata) 구조로 구문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계층구조를 전제로 하는 김영희(1998) 류의 내포문설과도 다르다.

2. 보조동사 구성의 형태론적 구성설의 한계

2.1. 보조동사는 등재소이다

‘ V_1 +어/아+ V_2 ’의 보조동사 구성을 관찰해보면 두 가지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보조동사 구성의 세부 요소인 V_2 는 본디 V_1 과 마찬가지로 ‘실질의미’를 갖는 주동사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는 보조동사 어휘가 본동사 어휘와 동형·동의미의 어휘였다 하더라도 모든 동사가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동사 형태만이 보조동사로 쓰인다는 점이다.

보조동사가 동형·동의미의 주동사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³⁾

- (1) ㄱ. 보다, 주다, 가다
 ㄴ. 들다, 돕다, 돌다
 ㄷ. 들어보다, 도와주다, 돌아가다
 ㄹ. *보아들다, *주어돕다, *가(아)돌다.

(1ㄱ, ㄴ)의 동사들은 문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사들이다. (1ㄱ)의 동사들은 (1ㄴ)의 동사 뒤에 결합하여 (1ㄷ)과 같은 보조동사 구성을 이룬다. 이때의 두 동사는 각각 ‘실질의미+추상의미’의 의미 차이를 보이며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기능한다. 본동사와 보조동사 사이의 의미와 기능의 분화는 결합 위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동사가 출현 위치에 따라 보조동사가 될 수 있다면 (1ㄹ)과 같은 성분 역전(逆轉) 구성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어휘 구성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 (2) 보조동사의 어휘 원리
 - ㄱ. 주동사와 보조동사의 의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휘만 한정적으로 보조동사로 기능한다.
 - ㄴ. 보조동사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어휘부에 등재된다.

왜 모든 주동사가 보조동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인가? 보조동사는 어휘 의미를 갖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된 양태적 의미로 사용된다. 즉 보조동사는 양상 조동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 속성은 어휘 기능의 제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동사의 의미 추상화에 대하여 김기혁(1987:59)에서는 문장의 연결에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이 합성동사화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동사만이 보조동사 구성

3) 일반적으로 보조동사 ‘버리다, 나다, 내다’ 따위를 어원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동형의 주동사와 관련시켜 보조동사로서의 의미 기능이 그 주동사로부터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서정수(1996:637~8)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또 서로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경로를 밟아서 보조동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통념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을 이룬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왜 이 동사들이 합성동사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해야 그 견해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또한 보조동사 구성은 그 자체로 완결된 문법 형식이 아니라 합성동사화 과정에 있는 과도적 상태라는 의견도 검증이 쉽지 않아 아직 주장으로만 남아 있다.

(2)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한 보조동사는 어휘부에 등재되는 특정의 어휘이며⁴⁾, 주동사와의 결합에 의해 구성하는 보조동사 구성은 합성어 형식과는 다른 구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주동사와 보조동사의 결합이 긴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긴밀성은 구성의 차원과는 다른 문제이다.

2.2. 보조동사 구성의 생산성

보조동사 구성을 통사론적 구성인 것으로 보려는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본동사와 보조동사 사이의 자유로운 연쇄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김기혁(1987:36)에서는 합성동사와 보조동사의 생산성을 비교하여, 합성동사가 선행동사와 후행동사 간의 선택제약이 몹시 심하여 합성동사의 생산성이 낮은 반면, 보조동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여 보조동사는 조어법에 의해 형태론적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통사규칙에 의해 통사론적 구성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⁵⁾

- (3) ㄱ. 영희가 물을 다 받아 간다.
- ㄴ. 유미가 편지를 찢어 버렸다.
- ㄷ. 땅이 갈라져 간다.
- ㄹ. 나는 눈을 감아 보았다.

4) 보조동사의 어휘 형태의 가짓수는 논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김명희(1984)에서는 4가지 범주 8가지 어휘를 제시한 반면 남기섭·고영근(1991)에서는 17가지 범주 33가지 어휘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대략 10여 가지 정도로 한정되는 추세이다. 자세한 내용은 손세모들(1996)을 참고하기 바란다.

5) 보조동사 구성의 생산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김기혁(1987:37)에서 제시한 “보조동사 구성의 생산성이란 보조동사와 연결될 수 있는 선행동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적이라고 규정한다”는 개념 규정을 수용한다.

- (4) ㄱ. 나는 장난감을 만들어 놓았다.
- ㄴ. 철수가 상자를 모아 쌓는다.
- ㄷ. 그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 놓았다.
- ㄹ. 아이들이 떠들어 쌓는다.

(3)과 (4)는 김기혁(1987)에 제시된 생산성에 따른 보조동사의 어휘 항목을 보여주는 예이다. 보조동사 중에는 (3)의 예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어휘 항목도 있고, (4)와 같이 그 정도가 낮은 것도 있어 균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조동사가 특별한 제약 없이 주동사와 결합하여 보조동사 구성을 이룬다는 것은 보조동사 구성의 생산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보조동사 구성의 생산성을 보는 다른 시각으로서 김영희(1998:405)에서도 어떤 구성체가 그 예를 낱낱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그 구성체가 조어법에 의해 형태론적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통사 규칙에 의해 통사론적 구성을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특유성을 띠면서 생산성이 매우 낮은 합성동사가 조어법에 의해 생성된 형태론적 구성체라면 일반성을 띠면서 생산성이 매우 높은 보조동사 구성은 통사 규칙에 의해 생성된 통사론적 구성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 논의된 내용의 개요를 (5)와 같이 간추려본다. 이는 보조동사 구성이 통사론적 속성을 갖는다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 (5) ㄱ. 보조동사는 특정한 어휘에 한정되며, 어휘부 등재소이다.
- ㄴ. 보조동사 구성의 [V₁+어/아+V₂]는 비분리성의 속성을 드러내지만 합성동사의 경우와는 다르다.
- ㄷ. 보조동사 구성은 생산적이다.

3. 보조동사 구성의 내포문설의 재검토

변형문법에 의한 보조동사 구성의 통사 분석은 언제나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전제로 이루어졌다.⁶⁾ 국어 보조동사 구성의 계층구조 분석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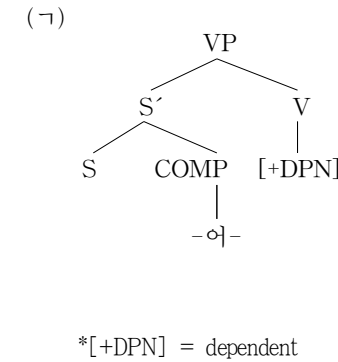
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김기혁(1987)에서 제시된 바 있는 V'설이고, 다른 하나는 변형문법에 기대어 제안되어온 내포문설이다. 여기에 서는 내포문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내포문설을 지지하는 논자들 가운데에도 Yang(1972), 김정대(1990) 등은 명사 보속절을 지지하는 반면 Park(1974), 황병순(1979), 권재일(1986), 김영희(1998)에서는 동사 보어절을 주장하고 있어 양분된 양상을 보인다. 명사 보어절과 동사 보어절의 논란의 핵심은 보문소 뒤에 대격 조사 '를'의 개입과 관련이 있다. 이를 격조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어절을 명사절로 다루지만, 동사절로 보는 견해에서는 '를'이 대격 조사가 아닌 다른 기능 - 그 기능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 의 조사라고 보는 것이다. 보조동사가 동사 보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동사문을 내포문이라 규정한 대표적 연구인 김영희(1998)의 이른바 보조동사의 동사 보속절 내포문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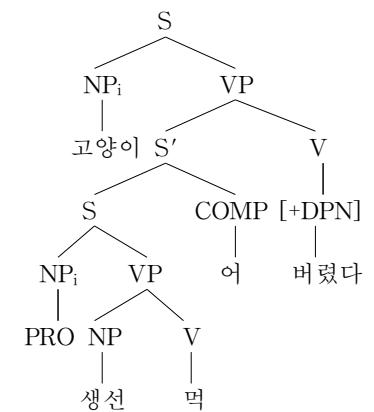
김영희(1998)에서는 보조동사 구문을 (6)과 같은 구조로 상정한다. 이 분석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조동사가 [+DPN] 속성의 어휘 항목으로서 모문(상위문)의 동사로 처리되는 것이다. 보조동사를 상위 동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포문 구성이 (7)에서와 같이 두 문장의 포유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조동사는 그 의미 기능이나 서술 기능으로 볼 때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양태 범주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양태 동사와 모문의 상위 동사는 그 문법 기능상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조동사는 서법, 시제, 존대 등의 문법적 기능 표시부이므로 실질적인 서술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며, 형식적 서술 기능을 갖는 동사를 상위문의 실질 서술어로 인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6) 이는 심층구조나 중간구조 내지 표층구조의 다층위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 다층위 분석은 이론적으로 구문의 계층성을 수형도로 도식화하여 보여줄 수 있어서 통사적 변형과 심층의 구조를 표면형과 관련지어 보여주는 강점이 있다.

(6)



(ㄴ)



(7) ㄱ. 고양이가 생선을 먹다.]⇒ ㄴ.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버렸다
 ㄴ. 고양이가 버렸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보조동사인 V_[+DPN]이 독자적으로 상위문(상위절)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보조동사가 상위문 서술어라 한다면 내포절 주어와 동일한 주어로 구성된 상위문(=8ㄷ)을 형식적으로라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조동사 구성의 비분리성을 제기한 바 있듯이 (8ㄷ)은 문장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 (8) ㄱ.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간다.
 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다.
 ㄷ. *은행잎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동사를 상위문의 본동사로 설정하여 내포문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내포문 분석을 위해서는 보조동사의 추상성과 의존성을 동시에 문법화하는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8ㄱ)을 유도해내기 위한 의도에서 중간적인(intermediate) 형식문장으로서 (8ㄷ)의 존재가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이 동사는 상위문의 서술어라 가정해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가다'가 문장을 구성하

기 위한 주동사로 기능해야 하고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쓰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8c)에서 다시 (8g)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출의 어느 특정 단계에서 '진행, 지속' 등의 상적 의미와 정도성의 강화라는 양태적 의미만을 드러내고, '이동'이라는 어휘 본의는 소실되는 변형의 절차가 설정되어야 한다. 즉, 통사적 변형과 동시에 어휘 의미의 추상화를 경험하는 문법적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리적인 고려가 없이 본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보속절 S'에 의하여 의미·통사적 보충을 받는 구조를 설정하는 것은(김영희1998:417) 추상적이고 의존적인 동사를 실질적이고 자립적인 동사와 기능상 동일하게 처리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 변화나 기능 변화는 통시적 현상이라는 형태론적 보편 인식을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다른 내포절에 의한 내포문 구성과 비교해 볼 때, 보조동사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으로서 통사 변화와 어의 추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문법적 절차에 대한 타당성과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둘째, 보조동사를 상위 동사로 하는 내포문은 국어의 다른 일반적인 내포문 구성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위문 동사의 의미와 용법상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상위문 동사에 따라 내포문을 다시 하위 분류하여야 하는 이론상의 문제점을 안게 된다.

- (9) 가. 모든 나라가 한국이 협상의 주도국임을 인정했다.(명사절 내포문)
 - 가'. 철수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 나. 땀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무섭게 느껴진다.(관형절 내포문)
 - 나'. 바람이 피부로 느껴진다.
 - 다.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자 세계가 깜짝 놀랐다.(부사절 내포문)
 - 다'. 철수는 종소리에 깜짝 놀랐다.

(9)에서 (가, 나, 다)은 내포문을 제시한 것이고, (가', 나', 다')은 내포문의 모문 동사를 주동사로 하여 구성되는 단순문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동사가 내포문의 모문 동사로 쓰일 경우와 단순문의 동사로 쓰일 경우에 어휘 의미상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문에서는 어휘 의미

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되었으나, 내포문을 구성하면서 그 의미가 추상화되고 형식화되는 예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보조동사는 본래의 어휘 의미에서 추상화되고 형식화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다른 내포문의 모문 동사와 구별된다. 보조동사를 내포문을 구성하는 상위문의 동사로 인정하는 한 다른 내포문의 동사 용법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속성을 따로 설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상위문 본동사는 논항구조를 가져야 하지만 보조동사는 의미론적 논항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보조동사를 상위문 동사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보조동사가 상위문을 구성한다고 하고 이를 (8c)과 같이 나타낸다면 상위문을 구성하는 보조동사는 일반적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의 논항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보조동사는 논항구조 명세와 그 실현에 있어 지극히 '제한적'이다.

- (10) 가. 철수가 영희를 만나 주었다.
- 나.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10)의 예는 이관규(1996:345)에서 옮겨온 것이다. (10가, 나)를 비교하면 보조동사 '주다'는 문장의 논항들과 아무런 연관을 맺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즉 보조동사는 문장의 양태범주이므로 논항에 적극적인 개입이 불필요한 것이다. 다만 (11)에서는 보조동사의 역할이 이와 다르다.

- (11) 가.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 나.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었다.
- 다.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주었다.
- 라.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어서 주었다.

(11)의 예에서는 보조동사 '주다'가 여격 논항 '아기에게'를 요구하며, 이를 문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주다'가 본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동사 연결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11라)의 예를 통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보조동사인 '주다'의 논항 결정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항 구조의 비일관성과 이를 통사적으로 구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다양성을 내포문설은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조동사의 논항 선택이 모든 보조동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다’와 같은 특정 보조동사에 한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동사가 양태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동사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의 진행 정도가 달라 논항 선택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관규 1996:342~350)고 하자.⁷⁾ 그리고 일반적인 보조동사는 논항구조와는 무관하며(손세모들 1996:48~52), 보조용언 구문에서 논항은 언제나 선행 용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같은 지위의 서술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보조적인 양태 의미만 갖고 있으면서도 문장의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동사에 대해 상위문 서술어 기능을 인정하는 여러 견해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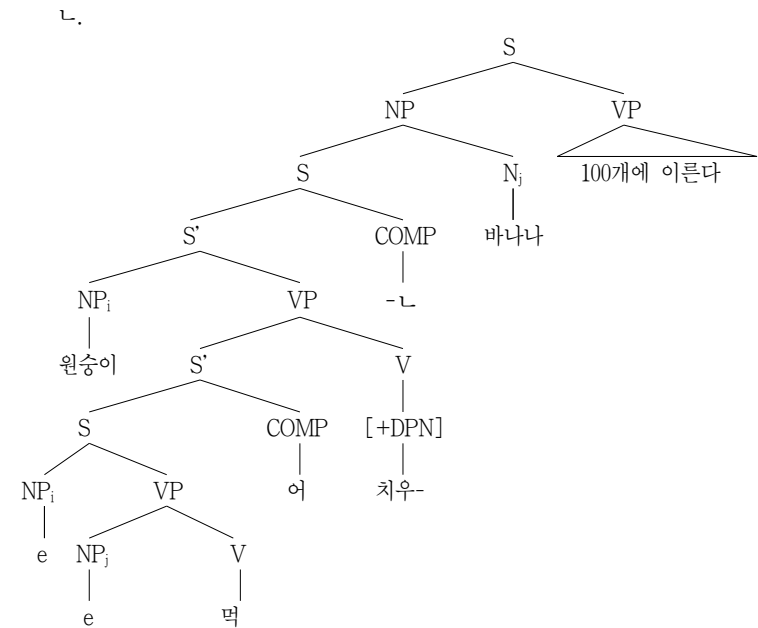
넷째, 동사 보어절 내포문설은 분명 V_[+DPN]과 V_[-DPN]의 구별을 전제로 수립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DPN] 속성이 분명하게 작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우기 보조동사가 자립적인 어휘 항목으로 서지 못하고 늘 본동사와 결합하여 문 구성에 참여한다는 점,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 통사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 내포문설은 그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보조동사가 거듭 사용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내포문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설명을 붙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12) ㄱ. 원숭이가 하루에 먹어 치운(먹어 치워 버린) 바나나가 100개에 이른다.

7) 보조동사의 논항구조에 대하여 이관규(1996)에서는 문장 사용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제1유형은 문장의 논항구조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제2유형은 본동사와의 관련 하에서 부분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고, 제3유형은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제2유형의 경우는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동일한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 의미 차원을 갖고 있을 때인데, 이때 해당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보조동사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다만 두 동사가 동일한 형태일 경우는 보조동사로만 해석된다고 보았다.

8) 손세모들(1996:48n)에서는 김양순(1993:113)의 견해를 따라 국어 보조동사는 논항을 취하지 않으므로 어휘 범주가 아니라 기능 범주임을 주장하였다.



보조동사를 상위문 서술어로 보는 한 보조동사가 중출하는 문장들은 상위문, 차상위문, 최상위문 등 중층적 상위 동사를 가정함으로써 분석의 계층 심도가 깊어져야 하고, 동시에 보문소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다.

4. 보조동사 구문의 단층위 분석

보조동사 구문은 통사론 층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때 (13)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3) 보조동사 구문 분석의 전제

ㄱ. 보조동사는 통사적 변형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 등재 소로서 독립 범주이다.

ㄴ. 보조동사는 독자적으로 문(상위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보조동사 구문

역시 내포문 형식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보조동사 구문을 내포문과 같은 상위 문과 하위문을 통한 계층적 분석이 아닌 단층위에서 선형성을 유지하며 분석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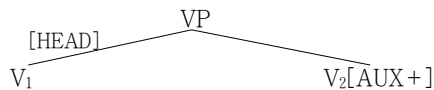
4.1. 단일 의미성과 핵자질 원리

보조동사 구성이 통사적 변형 과정을 거쳐 내포문 구성의 결과로 얻어진다면 V₁과 V₂의 통사적·의미적 기여 정도가 엇비슷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조동사 구성은 위 예들에서 보듯 형태론적 구성체(예: 합성동사)에서나 보이는 의미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즉 오직 한 가지 의미(행위)를 드러낸다. 복합적 의미 내지는 순차적 의미를 보이는 통사론적 접속과는 분명하게 다른 현상이다.

- (14) ㄱ.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버렸다.(=먹었다)
- ㄴ. 영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쓸었다)
- ㄷ. 이창훈은 고수답게 대마를 살려냈다.(=살렸다)
- ㄹ. 진주는 성질이 순해빠졌다.(=순하다)

(14)의 예에서 보조동사 ‘버리다, 내리다, 내다, 빠지다’는 공통적으로 양태 요소로 기능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양태범주 자체는 문법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거나 바꾸는 적극적인 통사적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14)의 문형을 본동사의 향가(valency)와 대비해 보면 쉽게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국어의 술부는 일단 (15)와 같은 단층위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15) 보조동사 구성의 단층위 제약(임시)



보조동사 구성이 (15)의 구조를 갖는다고 전제하되 V₂[AUX+]의 가의(加

意) 기능을 논의로 한다면, 보조동사 구성의 문법적 정보는 핵어(head)인 V₁ 으로부터 투사되는 것이므로 V₂[AUX+]의 실현은 수의적이다⁹⁾. 이 구조는 보조동사 구성(VP)에 한정되지 않고 이 구성의 투사에 의해 형성되는 모문(S)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통사론의 시각에서 보면 보조동사는 수의적 요소이고, 화자는 어떤 의미론적 필요에 의해 보조동사를 실현시킨다는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 (16) ㄱ. 박물관이 살아 있다.(영화 제목)
- ㄴ. *박물관이 살고 있다.

(16)의 두 예문은 의미가 다르다. ‘박물관’이 유기체와 같이 ‘살다’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표시하는 은유적 의미는 (16ㄱ)이고, (16ㄴ)는 ‘거주하다’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박물관’의 속성상 진행상의 ‘거주하다’와 양립하기 어려워 비문이 된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첫째,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연결 가능성은 보조동사의 어휘 특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둘째, 보조동사에 따라 본동사 어미 ‘-아/-고’가 결정된다는 것이다.¹⁰⁾

- (17) ㄱ. 나를 믿어보세요.(믿어주세요, 믿고있어요, *믿어썩는구나)
- ㄴ. 잠을 자고있다.(자뒤라, 자버리다, *자먹다, *자가다)
- ㄷ. 꽃을 따(*고)주다, - 심어(*고)주다, - 팔아(*고)주다.
- ㄹ. 고통을 참아(*고)내다. - 막아(*고)내다. - 이겨(*기고)내다.
- ㅁ. 고통을 참고(*아)말다. - 이기고(*어)말다. - 키우고(*어)말다.

(17ㄱ, ㄴ)에서는 ‘믿어주다/믿고있다/자고있다/자두다’의 연결은 가능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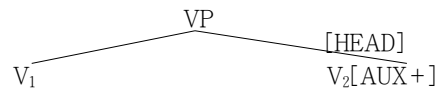
9) 보조동사의 수의성(optionality)은 우리말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 보편적 속성이다(박희명 2004: 246-251).

10) 손세모돌(1996)에서도 보조동사의 화용론적 의미가 타동사나 사동형 동사의 내부논항의 실현을 달리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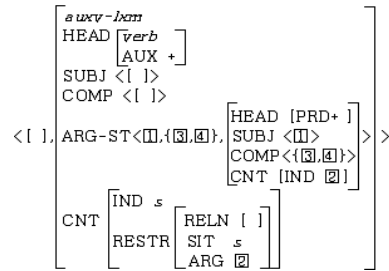
예 : {웃을/*피해를} 입혀주었다.
 {연을/*돈을} 날려주었다.
 {넥타이를/김을/*목을} 매주었다.
 {영화 구경을/*고생을} 시켜주었다.

믿어쌓는다/*자먹다/*자가다'는 불가능함을 보이는 예들이다. 또 (17ㄷ, ㄹ, ㅁ)은 '-어/-고'의 어미가 보조동사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보조동사가 본동사의 어미 형태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어가 보어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보편적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보조동사 구성의 통사적 핵어는 (15)의 예측과 다르게 V₂일 수 있다. 그리고 V₂를 동사구의 통사적 핵어로 인정한다면 핵말(head-final)구조의 국어 특성과도 부합하는 논리적 이점이 있다. 필자는 보조동사 구성의 핵어 지정과 관련하여 핵어문법(HPSG)적 견해를 수용하여 (15)의 제약을 (18ㄱ)과 같이 수정하고 보조동사의 어휘 정보를 (18ㄴ)과 같이 설정한다.¹¹⁾

(18) ㄱ. 보조동사 어휘소의 어휘 정보 명세



ㄴ. 보조동사 어휘 정보 명세



(18ㄴ)은 보조동사가 VP의 핵어로서 본동사를 논항구조에 명시하고 본동사의 논항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속성을 형식화하고 있다.

보조동사 구성을 단층위로 분석한다는 것은 (19)와 같이 V₁과 V₂를 단일한 선형구조 상에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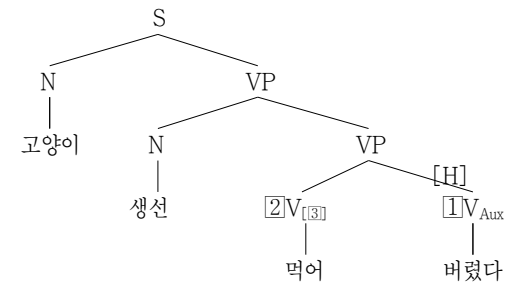
11) 핵어문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체계에 대해서는 박효명(2004)와 Sag, Wasow, Bender(2003)을 참고하라.

(19) ㄱ. 철수는 음식을 먹어 보았다.

ㄴ. [[[철수는 음식을][먹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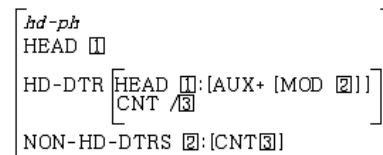
보조동사 구문은 명제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후속하는 양태 표시부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 양태부는 보조동사 구성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단순한 선형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보조동사가 주어와 본동사의 연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명제부에 '첨가(교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영희(1998)에서 제시한 분석(=6)은 (20)과 같이 새롭게 분석된다.

(20)



이러한 분석은 보조동사 구성이 마치 합성동사의 분석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보조동사는 명제로서의 선행 문장에 결합하는 양태성 기능범주로서 앞으로 논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21) 보조동사 구성(VP)의 핵자질 원리



(21)의 원리는 보조동사문의 핵어인 보조동사 구성(VP)의 통사·의미정보를 명시한다. 보조동사 구성의 핵어(핵 자범주, HD-DTR)는 V₁이 아니라 보조동사인 V₂([1])이며, 보조동사는 V₁을 부가어 논항('MOD [2]')으로 취한다. V₁

을 하위범주화하는 V₂는 V₁의 항가자질을 비롯한 논항정보까지 전수받게 된다. 그리고 비핵자범주('NON-HD-DTR')인 V₁의 의미정보('CNT')는 보조동사에 전수되고 이 의미정보는 기본(default:/)적으로 보조동사 구성 전체의 의미('CNT/③')로 투사된다. 이 원리는 보조동사 구성의 제약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보조동사 구성의 통사정보는 핵어인 보조동사로부터, 의미정보는 기본적으로 본동사로부터 투사된다.

보조동사의 통사의미상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본동사의 그것이 그대로 전수(inherit)된다. 정보가 전수된다는 것은 보조동사 구성의 기본적인 문법적 정보는 명제부가 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명제부의 핵어인 본동사의 정보가 보조동사의 정보 속으로 구조공유(structure share)되고, 이는 다시 VP로 투사된다는 의미이다.¹²⁾ 뒤에 제시되는 (23)은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4.2. 단층위 분석의 설명력

형태론적 구성설이 제기하는 보조동사 구성의 비분리성과 대응 등의 문제가 단층위 분석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가. V₁-V₂의 비분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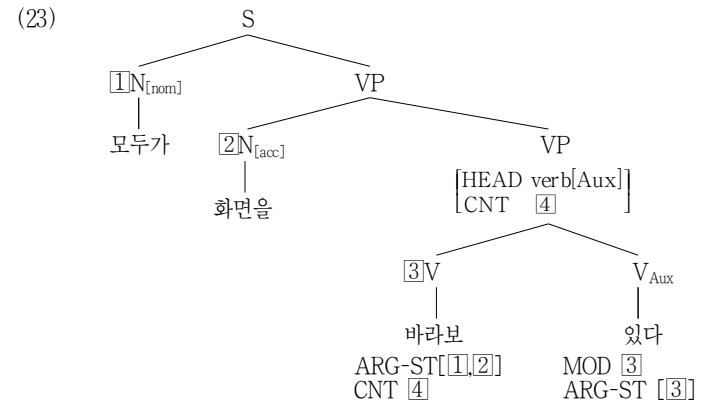
보조동사 구성의 비분리성 문제는 내포문과 같은 계층구조를 전제하지 않는 한 문제될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형구조 분석에서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직접 결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여타의 범주가 삽입되거나 본동사나 보조동사가 이동되는 일이 없다.

(22) ㄱ.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ㄴ. *모두가 있었던 것은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12) 논항의 전수는 핵이 논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이 다른 핵에게 옮겨지는 것(채현식 2002:218n) 또는 핵이 자신의 논항과 결합하지 않은 채 자기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다른 핵과 결합해서 자신의 논항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는 현상(박진호 1994:55)을 말한다. 또 채현식(2002)에서는 형태론 층위에서의 논항전수를 설명하면서 동사의 논항구조 중 일부 논항이 단어 전체로 전수되어 단어 밖에서 실현되는 현상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조동사의 일부 특정 논항 실현 방식이 이에 비견될 만하다.

(22)는 V₁과 그것이 논항 지배하는 절 성분을 V₂와 분리시켜서 분열문의 '이다' 성분 앞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이는 예이다. (22)의 보조동사 구 '바라보고 있다'는 V_[Aux]가 통사핵어로, V₁이 의미핵어로서 논항을 유도한다. 따라서 VP는 마치 합성동사와 같이 두 동사가 결합되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보조동사 구성의 일부 성분에 대한 통사조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이 예는 내포문을 갖는 계층적 구문이 아닌 보조동사구를 서술어로 하는 단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나. 대응

대응과 관련하여 보조동사 구성의 특질 가운데 하나가 보조동사 구성 전체에 대한 대응이나 본동사만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보조동사의 단독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조동사 구성의 통사론적 구성설을 받치는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조동사 구성의 어떤 속성이 대응의 독특성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대응성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의문이다.

어떤 어휘항목을 다른 어휘항목으로 대치하되 그 관계가 '정항-변항'의 관계로 연결될 때 이를 대응이라 할 수 있다.¹³⁾

13) 정항범주가 그 어휘 의미만으로 의미 해석될 수 있는 즉, 고유한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는

- (24) 나라가 우유를 마셔 버렸다.¹⁴⁾
 - ㄱ. 유미도 (우유를) 그래 버렸다.
 - ㄴ. *유미도 (우유를) 마셔 그랬다.
 - ㄷ. 유미도 (우유를) 그랬다.
- (25) 나라가 웃고 있다.
 - ㄱ. 유미도 그러고 있다.
 - ㄴ. *유미도 웃고 그런다.
 - ㄷ. 유미도 그런다.

여기에서 ‘그러/ 그래’는 변항성 범주이다.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표현상의 경제성을 위하여 이러한 대응현상이 활용된다. 변항성 범주는 그 자체로서는 지시적 대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화맥 또는 문맥에서 그 지시대상이 정항으로 주어져야 한다. 정항은 실제적이든 추상적이든 간에 지시대상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어휘항목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문장에 사용된 변항성 범주는 그 지시적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의미 해석이나 문법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해석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¹⁵⁾ 따라서 (24, 25)의 ‘그러/그래’ 표현이 본동사를 대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그래’와 동일지시 관계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선행 맥락에 제시되어 있어서 문법적으로 그 지시적 공백을 보충하여 완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동사는 화자의 태도나 의도를 나타내는 기능범주이므로 설명 이것을 다른 대응 표현으로 대치한다 하더라도 의미해석상의 객관성 즉 선행사와의 동지시 관계의 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기능범주인 이상 ‘정항-변항’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게 되므로 ‘정항-변항’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대응현상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립적 어휘임에 비해 변항은 항상 문맥에 의존하여 의미 해석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고정된 지시 대상을 갖지 못하는 문맥 의존적 어휘이다.

14) 이 예들은 김기혁(1987:21)에서 옮겨 온다.

15) 통사적 완결성과 의미적 완결성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통사적으로 적형성은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생략, 축약 따위의 요인에 의해 구성 성분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벽하게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유연성은 의미론적 완결성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통사적으로도 핵자질원리에 의해 보조동사는 핵범주이다. 핵범주는 통사의 미적 정보([SYNSEM])가 명시되는 부분인데 이를 변항으로 대치한다면 핵어로서 갖는 통사정보, 의미정보, 담화 정보 등의 제반 사항을 충실히 명시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대응은 봉쇄된다. 따라서 보조동사의 대응은 통사론적으로나 의미 해석상의 불완전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다. ‘-시-’의 첨가

존대 형태소 ‘-시-’가 일반적으로는 보조동사에만 첨가되는데, 일부 보조동사 구문에서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에 각각 첨가되는 일이 있다. 이 역시 통사론적 구성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태범주에 시제와 상, 존칭의 문법 기능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말에서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26) ㄱ. 형님은 고통을 이겨 내셨다.
- ㄴ. *형님은 고통을 이기셔 내셨다.
- ㄷ. 어머니께서 그걸 먹어 버리셨다.
- ㄹ. 어머니께서 그걸 잡수셔 버리셨다.

(26)에서 보듯 ‘이겨 버리시다’는 가능하지만 ‘이기셔 버리시다’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시상과 존대는 보조동사에 첨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먹어 버리시다’의 존대형으로 ‘잡수셔 버리시다’가 가능한 것은 본동사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본동사에 존대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보조동사의 내포문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5. 맺음말

이 글은 보조동사 구문의 단층위 분석의 이론 틀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진

행된 연구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국어 보조동사 구성을 형태론적 구성체로 규정하여 그 문 구성을 단문으로 보는 견해와 통사론적 구성체로서 복문을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를 살펴보고, V₁-V₂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사 구조 분석에 활용하는 내포문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조동사 구성은 복문이 아닌 단문을 형성하며, 'V₁+어/아+V₂' 형식의 VP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층위에서 선형성을 유지한 채 분석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조동사의 핵자질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국어 보조동사 구성은 [V₁+어/아+V₂] 구조의 서술어로서 보조동사는 문 구성에서 핵어로서 논항구조를 결정하고, 본동사는 문 전체의 기본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적 핵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동사의 문법 정보는 핵어인 보조동사의 핵자질 원리에 따라 상위 범주인 동사구(VP)에 전수된다. 이러한 분석은 보조동사에 시제와 상, 양태 의미 등 문법적 기능이 부과되는 것보다 상통하고, 선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어의 교착어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지면 관계로 이 글에서는 선형구조를 유지한 분석의 개략을 소개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동사문의 복문설을 통해 다루어진 많은 문제들 중에서 수동화 현상, 부정어 문제, 격표지 교체 등의 통사적 문제들과 양태범주로서의 의미론적 속성들이 단층위 분석법을 통해 더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보조동사, 내포문, 단층위 분석, 선형구조, 통합문법, 핵어문법, 핵자질 원리, 선형 분석, 교착성, 핵

< 참고 문헌 >

고영근(1989), 「형태부와 통사부의 상관관계」, 고영근(1991:3~14) 재록.
 고영근(1991),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 외(2002),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창수(192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제22집, 259~269.
 구분관(2002), 「'동사어간+아/어+동사어간' 합성동사 형성의 원리」, 고영근 외(2002: 173-193)에 실림.
 김광희(1997), 『국어 변형범주 연구』, 한국문화사.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기혁(1994), 「문장 접속의 통어적 구성과 합성동사의 생성」, 『국어학』 제24집, 403~465.
 김기혁(2005), 『언어의 생성과 응용』, 박이정.
 김명희(1984),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관계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승곤(1996), 『현대나라말본 - 형태론 -』, 박이정.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김영희(1993), 「의존 동사 구문의 통사 표상」, 『국어학』 제23집, 159~190.
 김영희(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역락.
 박효명(2004), 『핵어문법 II』, 전남대학교 출판부.
 손세모듈(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시정곤(1992), 「통사론의 형태 정보와 핵 이동」, 『국어학』 제22집, 299~324.
 시정곤(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제24집, 231~258.
 시정곤(2002), 「단어를 바라보는 눈」, 고영근 외(2002:195~215)에 실림.
 안명철(1990), 「보조동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319~330.
 이관규(1986), 「보조동사의 생성과 논항구조」, 『한국어학』 제3집, 333~352.
 이관규(1987), 「보조동사의 특성과 문법적 범주」, 『한국어문교육』 제2집, 53~60.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해영(1992), 「'보조동사구문의 통사적 특성」, 『국어국문학』 제108집, 187~208.
 임동훈(2003), 「국어 양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12집, 127~153.
 채현식(2002), 「형태론에서의 논항 총족과 논항 전수」, 고영근 외(2002:217~240)에 실림.
 최현배(1937/1987), 『우리말본』(열네번째 펴냄), 정음문화사.

황병순(1987), 『국어 상 표시 복합동사 연구』, 형설출판사.

Sag, I.A. & T. Wasow (1999), *Syntactic Theory - A Formal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s.

Sag, I.A., T. Wasow, E.M.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 A Formal Introduction* (2nd.ed.), Univ. of Chicago Press.

[Abstract]

Agglutinative and linear order based analysis of the auxiliary verbs in Korean

Kim, Kwanghe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Korean auxiliary verb system. This is one of the most extensively analyzed empirical domains in the literature on generative syntax. There are major two treatments of auxiliaries — 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approach —, because the Korean auxiliary system ha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a morphological construction and those of a syntactic construction. Our analysis treats auxiliaries as a syntactic head (but main verbs are semantic head). And we intend to suggest three basic observations about the auxiliary system in this paper, like as non-transformational surface oriented, linear order based, and agglutinative confirmed.

Key words : HPSG, head, auxiliary system, verbal construction, linear order structure, agglutination, mono-stratal, head feature principle, embedding, unificational approach

김 광 희
광양보건대학 작업치료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23-1
전자우편 : linguakim@hanmail.net
